

1930년대 『불교』지 문학장의 구성과* 문학적 실현 양상 - 편집인과 직원·기자를 중심으로 -

김종진
동국대학교
kimjj37@hanmail.net

- I. 머리말
- II. 한용운 편집인의 등장과 문학장의 재편
- III. 불교사 기자의 활약과 장르 확장
- IV. 1930년대 불교문학장의 구도와 성격
- V. 맺음말

요약문

근대 불교 잡지는 1912년에 간행된 『조선불교월보』를 기점으로 2~30종정도가 전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잡지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오랫동안 간행된 잡지는 단연 『불교』(전108호, 1924.7~1933.7)이다. 『불교』는 다양한 사상적 담론 외에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내용이 호마다 편제되어 있어 종합지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1920년대 『불교』지에 구현된 문학장에 대한 선행 고찰에 이어 본고에서는 1930년대의 문학장 구성의 주체와 그 문학적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표 편집인과 소속 직원 및 기자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적 역할만 한 것이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7259). 동시에 이 논문은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016.5.28)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임.

아니라 이 시기 문학장 구축의 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로도 문학 작품 창작을 통해 문학장을 구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권상로에 이어 편집인으로 등장한 한용운이 새로운 편제를 통해 신진문사들을 다수 등장시킨 경과를 살펴보고, 권두언에 새로운 산문시를 게재함으로써 문학지의 성격을 가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불교시단]을 통해 이 시대 새로 약진하는 강원, 전문학교 출신의 문학청년 40여 명이 시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해는 이들 신진 문사들, 불교문학청년들을 지면으로 이끌어내는데 좌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태흡, 도진호, 김일엽, 안진호 등 불교사의 전 현직 직원 및 기자(촉탁기자 포함)들은 시, 시조, 기행문, 수필, 희곡, 설화, 소설 등 다양한 양식을 활용하여 불교문학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의 글은 1920년 말의 일반문인의 문학작품을 대체하면서 종교성과 시대성을 강화하는 1930년대 초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불교잡지, 불교문학, 근대불교, 한용운, 김태흡, 도진호, 김일엽, 안진호

I. 머리말

한국 근대문학에서 불교와 문학이 만나 창조된 언어 구조물을 살피는 일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광수의 소설과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을 검토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의 문학성을 검토하여 문학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이들 대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불교문학의 흐름을 서술해 온 것은 타당성이 있다. 불교계 잡지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불교계 잡지에는 근대적 격변기에 사상적 탐구를 행한 불교지성인들의 종교적 감성이 문학 형식으로 표출되어 있고, 수많은 문학청년들의 창작의 열의가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이를 도외시하고는 이 시기 이루어낸

문학적, 문화적 창조 역량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익명에 가까운 필명으로 등장하는 작가들, 문학청년의 치기가 완전히 가지지 않은 다수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존재를 도외시하는 것은, 마치 이 시기의 불교사를 경허, 한암, 만공 등 대표적인 선사 몇 명으로 기억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비록 그들이 문학사적인, 불교사적인 흐름 속에서 뚜렷한 자취를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이것이 근대라는 변혁의 시기, 주체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한 갈구와 자기표현의 욕망들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문화 폭발의 시기에, 젊은 청년들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집체적으로 담아냈던 잡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불교계의 대표 기관지와 기타 여러 잡지들은 한국의 근대 불교의 정립과정에서 다대한 기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측면에서도 근대 불교문학의 보고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잡지를 간행한 편집인, 직원 및 기자 등 여러 주체들, 그리고 투고에 참여한 많은 투고자들 즉 ‘불교청년’, ‘문학청년’, 나아가 ‘불교문학청년’의 존재는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불교계 잡지를 통해 근대불교문학 연구의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1930년대 『불교』지에 구축된 문학장의 구성 주체와 그 문학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¹⁾ 구체적으로는 잡지의 문학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불교』지 편집진·편집인·직원 및 기자-의 층위를 파악하고 그들이 지면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들이 창작한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근대 불교잡지 문학장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일조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1) 1920년대 『불교』지에 전개된 문학장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선행논문(2015a, 2015b) 참조.

II. 한용운 편집인의 등장과 문학장의 재편_불교시단 신설과 권두언 시의 창작

『불교』지의 편집과 발행은 권상로와 한용운이 차례대로 담당하였다. 권상로는 창간호(1924.7)~83호(1931.5)까지, 한용운은 84·85호(1931.7)~종간호(108호, 1933.7)까지다. 만해가 편집인으로 부임한 후 보여준 가장 큰 지면의 변화는 87호(1931.9)부터 『佛敎詩壇』란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이후 『詩壇』(93호), 『讀者時調壇』(97~99호)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불교시단’이란 편명으로 종간호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점점 분량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불교시단」란을 통해 전국 여러 사찰의 강원, 불교청년회, 유학생,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 청년 승려들이 시인으로 다수 등장하게 된다.²⁾

한용운이 문학지로서 『불교』지의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社告를 내거나 개인적 소회를 피력한 글은 없다. 또한 한용운이 이들 불교문학청년들과 문학을 매개로 교류한 사실이 잡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님의 침묵』(1926)을 간행한 시인으로서 불교내외의 명성을 얻은 상황에서 편집인으로 부임한 그가 보여준 편제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당시 문학청년들의 창작열을 잡지로 수렴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해는 편집인으로서 문학투고의 장을 활성화하여 투고를 추동하고 젊은 청년문사들의 정신적 좌장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용운은 이렇듯 불교문학의 장이 재구축되고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편집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문학인으로서 창작 작품을 게재하여 『불교』지에 문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가 부임하여 최초로 펴낸 84·85호(1931.7)에 권두언으로 <還家>(시조)를 발표한 이후 91호(1931.12)까지 매 호마다 시(창작시 혹은 舊稿), 시조, 산문시를 발표하였다. 이는 전임자 권상로가 초기에 찬불가를 수록했으나 이후 작품을 발표하지 않

2) 문학지면의 연도별 변화와 편집 체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불교』지 문학지면의 연대기적 고찰」(『한국문학연구』 51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6.8)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고 오랫동안 권두언을 문학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권두언에 수록된 이들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이나 미래를 노래한 시의성 있는 작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불교』지 소재 한용운의 시 작품

호수	연도	수록 작품	
		[권두언]	[불교시단]
84·85호	1931.7.	<還家>(시조)	<聖誕>(시)
86호	1931.8.	‘스스로~’(산문시)	<비바람>(舊稿)(시)
87호	1931.9.	‘恒河沙劫의 時間~’(산문시)	<만달과 소녀>(구고)(시)
88호	1931.10.	‘나가 없으면~’(산문시)	<산촌의 여름 저녁>(구고)(시)
89호	1931.11.	‘成功하는 道中에서는~’(산문시)	
90호	1931.12.	‘해는 저물었다~’(산문시)	<歲暮>(시)
91호	1932.1.	‘해는 새롭었다~’(산문시)	
93호	1932.3.	‘가머는~’(시조)	
94호	1932.4.	‘이른봄~’(시조)	
96호	1932.6.	‘따스넷~’(시조)	
101·102호	1932.12.	‘해가고~’(산문시)	
103호	1933.1.	‘새봄이~’(시조)	
104호	1933.2.	‘가마귀~’(시조)	
105호	1933.3.	‘봄스 동산~’(시조)	
107호	1933.5.	‘隙雲이~’(산문시)	

제목 없이 등장하는 권두언 중 시조 작품은 기존 연구에서도 만해의 작품으로 인정되어 왔다.³⁾ 권두언에는 “만해”라는 호가 마지막에 명기되어 있어 만해의 작품이 확실하다. 이 중에는 한문 경구⁴⁾나 시사적인 단문⁵⁾도 있어 모든 권두언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시나 시조 외에 표에 소개한 <스스로> <항하사겁> <나가 없으면> <성공하는 도중> <해는 저물었다> <해는 새롭었다> <극운이> 등은 평이한 산문처럼 보이지만 내재율

3) 96호(1932.6)에 수록된 시조는 그 가운데서도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다.(따스넷 등에게지고/ 維摩經 읽노라니// 어지럽게 나는꽃이/ 글스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밀글스자를/ 읽어무삼 하리오.)
 4) “圓同太虛 無欠無餘”(92호, 1932.2), “天上天下 唯我獨尊”(95호, 1932.5)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慈悲인同時에 大勇猛이러야한다 忍辱인同時에 精進이러야한다 我空인同時에 唯我獨尊이러야한다”(97호, 1932.7)와 같은 글이 이에 해당한다.

을 갖춘 산문시(자유시)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시적 여운을 주는 작품들이다. 당시 잡지의 지향과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권두언의 자리에 있는, 기사문과 산문시의 경계에 있는 이들 작품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기사문이 아니라 문학적 향유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용운은 『불교』지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권두언]란을 문학지면화 함으로써 『불교』지를 문학적 텍스트로 유통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만해는 84·85호 권두언에 “처음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 기루어 다시 온다”는 내용의 <환가>를 발표하였다. 이는 취임의 辯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히는데, 다음 호에서는 시적 긴장감이 살아 있는 비유적 산문으로 권두언을 채웠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사는 것이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요한 것은 죽은 것이다
 움직이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제 生命을 제가 把持한 것이다
 움직임이 곳 고요함이요 고요함이 곳 움직임이 되는 것은 生死를 超越한 것이다
 움직임이 곳 고요함이요 고요함이 곳 움직임이어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이 안이며 움직임은 움직임이오 고요함은 고요함이어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한아가 안인 것은 生死에 自在한 것이다 (86호의 권두언. 띄어쓰기 필자)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은 현상적으로 대립적이다. 또 생과 사의 분별만큼 대립적인 인식도 없을 것이다. 일종의 형식논리에 따른 첫 행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라 믿는 중생들의 분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하 행에서 생과 사, 현상과 본질, 物과 我的 대립, 혹은 현상계의 차별성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움직임’과 ‘고요함’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은 깨달음의 심도를 점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양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把持함”,

“超越합”, “自在합”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상승하는 단계를 표현하였다. 2행은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다르나 동시에 결립 없이 심중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주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3행은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호 즉(卽)한 상태를 말한다. ‘色卽是空 空卽是色’의 논리와 표현을 원용한 것이다. 4행의 앞 구에서는 다시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문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데 후구에서는 그렇다고 각각의 개별자가 無化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즉 개별적 현상, 개별적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요 우주로서 ‘움직임은 움직임이요 고요함은 고요함이어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하나가 아닌 것’이다. 전체적인 시상의 흐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중략)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전래의 선어의 논리를 계승하고 있다. 이처럼 만해의 권두언 가운데 산문처럼 보이는 권두언의 일부는 산문시, 즉 자유시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권두언의 만해 창작 시조 가운데 전통 시조를 패러디한 작품⁶⁾, 신년을 기념하고 자연의 변화를 노래한 작품⁷⁾ 등을 보면 『님의 침묵』의 긴장감과 문학적 성취가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잡지 게재 권두언 산문시는 불교적 시상을 유장한 호흡과 리듬으로 전개한 작품으로서 불교시의 전통과 맥락에서 새롭게 평가할 만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만해의 시문학에 대한 평가는 『님의 침묵』으로 시작하여 『님의 침묵』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 잡지 소재 만해 시조는 전통 시조 작품의 패러디인 경우가 많아 시적 성취를 논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 [권두언]란의 분석을 통해 만해가 여전히 시적 긴장을 늦추지 않은 산문 형태의 불교시를 창작했고, 종교성과 문학성이 가미된 이들 작품은 독자들에게 묵직한 사유의 기회를 제공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6) “가머는 못갈소냐/ 물과피가 많어기로// 건느고 또넘으면/ 못갈리 없나니라// 사람이 제안이가고/ 길이멀다 하더라”(93호, 1932.3)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94호(1932.4), 103호(1933.1), 105호(1932.3)의 권두언이 이에 해당한다.

III. 불교사 기자의 활약과 장르 확장_시대성과 종교성 강화

불교사 직원과 기자는, 지금까지 독립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예는 없는 듯한데, 매 호마다 편집진으로서 전체 주제를 기획하고 필진을 추천하며 원고를 의뢰하는 통상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자신들도 필진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⁸⁾ 『불교』 전 기간에 걸쳐 등장하는 양상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으로 권상로와 한용운이 있고, 불교사 직원 및 기자로 김태흡, 백성욱, 유엽, 방인근, 김일엽, 도진호 등이 있으며, 촉탁 기자로는 안진호(만오생)가 있다. 이들 가운데 1930년대 전반에 문학장을 형성하는 주요 인물로는 김태흡, 도진호, 안진호, 김일엽 등이 있다.⁹⁾

1. 김태흡

김태흡은 1924년 『불교』지 창간 초기에 유학생 신분으로 불교사 동경 기자로 활동하면서 『불교』지와 동경 불교유학생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고, 귀국 후에는 각황사 중앙교당의 포교사이자 불교사 직원, 기자로서 실질적인 편집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매주 각황교당에서 日土설교시에 강연을 하였고, 경성 방송에 출연해서 불교 강연을 하였다. 그의 강연 제목은 매 호 『불교』지의 [취보]란에 소개되었고, 이후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불교계 잡지에 발표되어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불교행사 시에 활용될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¹⁰⁾

8) 김성연(2008)에 따르면 『불교』와 『(신)불교』에 투고한 주요 필진 중 30건 이상 글을 발표한 이는 김태흡(158건), 권상로(111건), 백성욱(43건), 허영호(43건), 조종현(38건), 만오생(35건), 한용운(32건) 순이다.(p.29)

9) 이들 중 안진호는 1920년대의 문학주체로 소개한 바 있고, 30년대의 활동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필자, 2015b) 김일엽은 1928년 입사하여 1929년 퇴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학 작품의 창작과 투고는 오히려 193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불교사 직원 명단에 보이지 않는 기간에도 불교사 주변에 있으면서 원고 의뢰를 받아 투고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불교사 및 불교계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김일엽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안진호는 제4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10) 선행 논문에서 유학 시절의 활동(2015c)과 문학지면에 발표한 글에 대해 목록 위주로 소개한 바 있다.(2016) 여기서는 이를 다양한 장르의 현상으로서 종합적인 양상을 언급하기로 한다.

김태흡¹¹⁾이 1930년부터 종간호까지 『불교』지에 발표한 문학 작품은 기행문 10편, 가극 1편¹²⁾, 소설 5편¹³⁾, 희곡 11편¹⁴⁾, 찬불가 및 시 13편¹⁵⁾ 등이다. 편수도 편수지만 기행문, 가극, 소설, 희곡의 경우 매 월 잡지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적지 않다. 1928,9년 경의 『불교』지에 팔목할만한 비중을 차지했던 일반 문인들의 희곡, 소설을 대신할 만큼의 분량에 육박한다. 문예잡지 성격을 강화했던 1920년대 말에 수록된 문예물의 대체재로서 김태흡의 여러 문학 장르는 그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행문은 잡지사 직원이자 포교사로서 당대 불교현실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장르로서 시대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쓴 기행문 10편은 모두 서울 경기 이북의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유독 지역적 편중성이 주목되는데 이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당시 각황교당의 포교사로서 활동한 자취를 반영하는 것이며, 불교사의 기획이자 불교계의 행정적 중심기관인 중앙교무원의 기획이라 할 수 있다. 「太祖大王의 發祥地 咸興傳道行」(70호, 1930.4)은 제목에서처럼 필자가 포교사로서 함흥지역에 ‘전도’를 행한 경과를 소개한 기행문이다. 「地下金剛 蝮龍窟遊記」(86호, 1931.8)는 1931년 6월 4일 서울을 출발하여 묘향산 보현사, 동룡굴, 영변읍의 보현사 포교당, 약산 동대를 거쳐 19일 入京하기까지 경과를 담은 기행문이다.

이상의 단편적 기행문을 거쳐 연작 형태의 기행문이 등장하였다. 「國境沿岸

11) 金泰흡은 素荷(金素荷), 三超(金三超), 壽松雲衲, 大隱(金大隱·釋大隱), 法雨樓主人 등 필명을 사용하였다.

12) 「勝利의 새벽」(成道歌劇)(67호, 1930.1)

13) 「(創作)回心」(73호, 1930.7)/「(創作)밝아오는 새벽」(79호, 1931.1)/「正信을 얻기까지」(창작)(94호, 1932.4)/「悔根」(창작)(95호, 1932.5)/「運命에 醜弄된 女性들」(창작)(100호, 1932.10).

14) 「(喜劇)뚝!!!」(69호, 1930.3)/「佛心」(史劇)(71호, 1930.5)/「우주의 빛」(聖誕劇)(72호, 1930.6)/「쌀」(희곡)(75호, 1930.9)/「눈을 뜨지 마랏드면」(喜劇)(76호, 1930.10)/「入山」(聖劇)(80호, 1931.2)/「不滅의 光」(聖劇)(82호, 1931.4)/「愛欲의 末路」(희곡)(84·85호, 1931.7)/「瞿夷仙女」(聖劇·戲曲)(96호, 1932.6)/「孟蘭盆」(聖劇)(98호, 1932.8)/「錢禍」(희곡)(99호, 1932.9).

15) <月印千江曲讚佛歌>(69호, 1930.3)/<月印코려스際歌><鍾소리>(70호, 1930.4)/<苦行歌>(81호, 1931.3)/삼초(萬東 편), <月印讚佛歌>(83호, 1931.5)/<病窓에서>(95호, 1932.5)/<目連의 至孝>(찬불가)(98호, 1932.8)/<新年頌>(103호, 1933.1)/<義州統軍亭>(104호, 1933.2)/<님의 발자욱>(105호, 1933.3)/<藍毘尼苑>(106호, 1933.4)/<莘夷花>(107호, 1933.5)/<哭達摩婆羅>(담마파라대사 弔哭詩)(108호, 1933.7). 이밖에 기행문 「北鮮一帶傳道巡講記」(89호, 1931.11)에 창작 가사 <유산록>이 있고, 다수의 기행문에 시조가 삽입되어 있어 시 작품의 총량은 더 확장될 수 있다.

의傳道行脚記」(88호, 1931.10), 「白頭山登陟記」(89호~90호, 1931.11~12), 「北鮮一帶傳道巡講記」(89호, 1931.11)는 이 시기 기행문 가운데 이채를 띠고 있는 시리즈물이다. 이 연작의 출발 과정을 담은 부분에서 ‘경성의 포교사’로서 가지는 시대적 책무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小衲이 京城의 布教師로 赴任한 後로부터 南西北鮮의 傳道거름을 얏기지 아니하얏으나 國境沿岸에는 한번도 가본 일이 업습니다. 新聞紙上을 볼것 가트면 다른 宗教의 敎役者들은 매양 夏期가 되면 國境을 넘어서 或은 南滿洲 或은 北滿洲까지도 敎化網을 퍼기 爲하야 도라단인다는 報道가 자주잇는데 우리 佛敎에서는 布敎傳道方面에 힘을 쓰는 분이 만이 잇으나 國境은 커녕 地方 안에서라도 巡廻傳道를 計劃하는 분이 적습니다. 이것은 熱誠이 적다는 것보다 機關이 그만큼 버러져잇지 못한 까답이겠지요 小衲은 이에 늦긴바가 잇서서 항상 佛敎를 理解치 못하는 地方에 가서 傳道를 하얏으면하는 생각을 하고 國境地方에 가서 傳道를 하얏으면하는 생각을하고 國境地方에 布敎의 거름을 斷行코져 한 바가 자못만앗읍니다. 그러나 오즉 주저하든 바는 旅費의 辨出無路를 근심하엿을분입니다. 이러하든차에 鍾城佛敎婦人會主催로 夏期佛敎講座를 연다하면서 期於히 와달나는 招請이 잇었읍니다. 그래서 보내준 旅費를 바다들고 七月十日 밤에 淸津行車를 타고 北鮮行客의 한 사람이 되엿읍니다.(88호 p.56)

타 종교의 활발한 전도행각을 의식하고 불교의 포교행각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탄식하며 국경지역의 불교 포교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중앙 포교사로서 가지는 신앙적 책무의식이 문면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비록 출발이 함경북도 중성불교부인회의 초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일련의 기행 기록은 함경도, 국경, 백두산 지역의 오지에 대한 근대불교의 최초의 답사기요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의 근대적 ‘전도’(포교) 기록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 편 연작 형태의 여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931.7.10.)경성 출발, 淸津행/(7.11)석왕사역 하차. 석왕사 방문/(7.12)會寧 하차. 鍾城도착/(7.13)중성에서 수양강화. 「불교의 인연관」 주제로 강연/(7.14)간도 방문. 저녁 강연/(7.15)三峰驛 불교부인회 초청으로 강연/(7.16)龍井村행. 대각교당에서 강연/(7.17) 회령행. 강연/(7.18)회령의 건봉사출장포교당에서 설법/(7.21)茂山읍 도착/(7.22)무산불교회 주최로 강연/(7.23~8.1)백두산 등반.(이 부분은 「백두산등척기」에 별도로 기술함)/(8.2)三長市 전도 강연/(8.3)두만강 뗏목을 타고 茂山행/(8.6)무산불교부인회 주최 강연.(이상 「국경연안의 전도행각기」)

(8.7)무산 출발. 羅南도착. 나남교당의 관북불교회 교당방문/(8.8)나남불교계 경영의 명성여자학원에서 강연/(8.9)나남 출발, 鏡城행/(8.10)경성의 보통학교 대강당에서 강연/(8.11)청진행. 신암동포교당 방문. 불교부인회 주최 강연/(8.12)신암동교당의 주최로 동해안유치원 등지에서 강연/(8.14)청진 출발, 城津행. 도중에 칠보산 순례를 위해 古站역 하차/(8.15)칠보산 개심사 도착.(가사 <유산록> 창작)/(8.16)개심사 출발, 성진행/(8.17)성진에서 불교강연/(8.18)함흥행/(8.19)千佛山 방문. 강연/(8.22)함흥출발, 원산행. 강연/(8.24)석왕사 방문/(8.25) 경성 도착.(이상 「북선 일대전도순강기」)

약 한달 반에 걸쳐 여행한 함경도 일원은 사실 그동안 불교계의 포교 여행기에서 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다. 필자가 말한 타 종교의 전도여행기가 선행되었을지라도 불교계의 기록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경 연안, 함경도 내륙의 여러 소 도시마다 불교회, 불교부인회가 주도가 되어 포교사를 초빙하고, 광고지를 수십 부 필사하여 도시에 붙이고, 광고 홍보를 하여 청중을 모으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느 도시에서나 최소한 50명에서 650명의 청중이 운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선남선녀는 물론이고 소년소녀들이 운집하여 때로는 불교설화로 어린이들을 유도한 후 내보내고 일반청중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매 강연마다 각 도시의 경찰서에서 집회신청을 하였는바, 대중의 소요를 우려하여 집회를 허락하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내준 사례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오지

라 할 수 있는 함경도 각 지역마다 도시 포교의 현장인 포교당을 중심으로 도시포교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두만강 건너편의 간도 땅, 용정의 대각교당까지 방문한 기록이 있어 국경지역의 불교의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의 1차적인 목적은 전도 여행이었기에 이에 대한 소개를 빠지지 않게 기록했으며, 「북선일대전도순강기」의 마지막 장에 일시, 장소, 강연주제, 청중의 수를 제시하여 그 성과를 잘 부각시켜 놓았다. 기록에 따르면 총 19곳에서 5,87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전도강연을 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89호, p.48)

이와 함께 기행문은 다양한 기록을 통해 독자들의 감상을 돕고 있다. 전반적으로 1930년대의 이북지역의 불교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지리와 시민들의 경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백두산등척기」는 ‘東方의 히마라야’라는 수식어가 제목에 붙어 있다. ‘히마라야’는 인도의 성지요 불교의 성지인바, 범어 히마는 ‘雪’, 라야는 ‘藏’의 의미로서 경전에서는 이를 雪山이라고 한다고 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까닭으로 나는 白頭山을 第二雪山으로 想像하고 白頭山만 가보드래도 雪山에 견주어 見聞所得이 만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p.26) 일종의 종교적 성지로서 히마라야를 대신하여 백두산을 신앙화하고 있으며 등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백두산 자체에 불교적 유적이 많거나 모든 사항을 불교와 관련시킬 수는 없다. 필자는 이보다는 백두산을 하나의 성지로 규정하고 그 시작과 끝을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성지순례라는 1차적 여행 의도는 백두산 정상에서 느낀 감격을 종교적 감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완성된다.

萬古氷雪 이고잇는 雪山은 어드멘지
千里林海 소사오른 白頭山은 여기로다
내몸도 님의 뜻 바다 예서 깨쳐 보오리

나는 밧그로 林海를 내다보고 안으로 天池를 내려다보면서 釋尊憶慕의 時調를 읊으며 法華經의 高遠한 理想과 華嚴經의 廣博한 精神을 體驗하고 般若經의 空漠한 思想과 涅槃經의 深玄한 理想을 그대로 思索하며 그려보았다. 그리고 佛敎의 偉大한 精神은 이리케 偉大한 大自然에 抱擁되어보지못하면 到底히 알기어려우리라고까지 생각하여 보았다

백두산은 석가모니가 고행하여 깨우쳤던 공간인 히마라야, 즉 설산이 조선 땅에 현현된 성소이다. 시조에서 필자는 백두산에 오른 감흥을 종교적 환희와 다짐으로 환치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설산과 백두산과 화자인 ‘나’가 하나가 되는 종교적 희열의 경지에 다름아닐 것이다. 나아가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를 내려다보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경외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열반경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높고 깊고 드넓은 경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경전이 보여주는 정신적인 위대함을 자연의 위대함에 연결시켜 하나로 통찰한 문학적 표현이다. 김태흡의 기행문은, 그가 의도한 바는 아닐지 모르나, 불국토관의 근대적 표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누락된 이북지역, 즉 의주, 신의주 지역의 전도여행기인 「西鮮國境의 傳道行脚記」(1·2)(103호~104호, 1933.1~2)를 포함하여 여러 기행문은 사실 김태흡 개인의 여행이라기보다 중앙포교당의 기획이요 불교사의 기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백두산등척기」는 89호에 발표되기 전부터 불교사의 기획물로 독자들에게 광고되었으며, 게재가 늦어지면서 독자들의 성화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김태흡은 포교사이면서 불교사 기자로서 도시 불교의 홍보와 확산에 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는 1920년대 말 『불교』지에 일반 문인들의 소설, 희곡, 시 작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문예지화한

16) 86호(1931.8) ‘社告’(p.25) - 본사 확장 의의미로 김태흡씨를 특파원으로 파송하여 함북각지를 순회하고 백두산을 참관하는 중이온즉 느껴도 본지 10월호에는 그 장관의 기행문이 게재되것사외다. 불교사白./87호(1931.9) 휘보 - 본사 함북지사장 장용상씨의 요망에 의하여 본사에서는 김태흡씨를 특파원으로 파송하여 함북각지를 순회강연하고 聖境인 백두산을 참관하게 되얏는데 그 전말의 기행문은 실로 기절장절의 사경이 전개될 것이다. 본지 10월호에는 유루없이 등재하여 독자의 종람에 제공하것사외다./88호(1931.10) 社告(p.25) - 본지 11월호에는 천하의 성경인 백두산의 기행문이 만재되것사외다. 불교사 백.

현상의 반작용으로서 잡지의 종교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⁷⁾

2. 도진호

도진호는 도시 불교의 현장에서 강연과 작품 활동, 계몽 활동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로서 불교사의 직원 및 기자로서 김태흡과 동 시기에 활동하였다. 그가 불교사에 언제 입사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79호(1931.1) 근하신년 광고란에 김태흡과 함께 불교사 직원으로 소개된 것을 보면 1931년 전후로 근무했으리라 짐작된다. 도진호는 쌍계사 출신으로 1925년 일본대학 예술과를 졸업하였고, 49호(1928.7)부터는 불교회보란에 각황교당의 연사로 활동한 양상이 자세히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29년 12월에는 희방사에서 『월인천강지곡』을 인간하여 학계에 제공하기도 하였다(68호, 1930.2).

그는 『불교』지에 단평과 시론을 다수 게재한 외에 시 작품도 창작하여 시 동인지인 『조선시단』 4호(1929)에 발표한 바 있다. 『불교』 67호(1930.1)에 찬불가 <成道歌>를 발표했는데 이는 성도절 행사에서 공연한 것으로서 같이 수록된 김태흡의 「勝利의 새벽」(成道歌劇)과 짝을 이루는 작품이다. 79호(1931.1)에는 <새 舞臺>, 80호(1931.2)에는 <成道の 노래>(시조)를 발표하였다. 중앙불전교우회지인 『일광』 1호(1928)에는 <生の 幻想>(시)를 발표하였다.

그의 기행문은 『불교』 75(1930.9)~77호(1930.11)의 「汎太平洋會記」와 이어지는 80호(1931.2)의 「太平洋大會記錄」이다. 각황교당에서 日土說敎의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한 도진호가 1931년 조선불교계를 대표하여 하와이 범태평양불교도대회에 참석하고 쓴 이 글은 당시 세계 불교 포교의 현실과 실행 방향을 자세히 소개한 보고서이자 기행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¹⁸⁾ 아울러 1931년 1월

17) 이는 그가 주력했던 또 다른 장르(희곡)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불교경전을 재해석한 변안, 변역 희곡이 대부분이며, 창작이라 하더라도 불경에 기반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은연(2006), 김기종(2010)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장르를 통해 불교사의 기자인 김태흡이 지면을 활발하게 장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호에 불교사 직원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연작 역시 불교사의 직원이
자기자의 소임을 기본적으로 가진 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記者 | 朝鮮代表로 第1回の 汎太平洋佛教青年會議에 出席하고 그 會議의 經
過顛末을 報告하기 爲하여 本紀를 抄하게 되었으나 이번의 旅行은 時日과
行地와 行事等の 範圍가 比較的 廣長錯雜한바 잇서 그[간] 보암즉한 旅
行紀로 나타내이기에는 只今에 나의 健康과 時間으로는 到底히 期得하지
못할바라. 이에 會議의 紀略으로써 諸山의 僉尊宿에 삼가 報告하오며 아올
러 惠加的 終始 | 넘어나 懇厚하섯사움을 汲히 感謝하나이다(75호 p.6).

이 글은 일종의 대회참가 보고서나 참관기에 가까운 글이다. 다만 건조하고
객관적인 기사문을 넘어서 비교적 다양한 시각에서 그 전말을 묘사하고 있어
일반 기행문 못지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글은 회의 참가의 전말과 회
의 경과, 안건 내용, 회의에서 행했던 자신의 발제문, 성명서, 조선불교를 대표
해서 나누어준 여러 자료의 목록과 상대방의 반응들을 소개한 복합적인 보고
서이며 해외 체험의 기행문으로 평가해도 실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인용한 서
문에서 필자는 ‘그간 보암직한 여행기’로 나타내고 싶었으나, 자신의 건강과
시간-그리고 여기에 불교청년계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보도의 시의성도 포함
될 것이다.-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기에 ‘會議의 紀略’을 서술하는 것으로 대신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자가 ‘여행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미
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한 것인데, 본고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선
에서 일종의 기행문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글은 1930년 7월 7일 경성을 출발하여 9일 일본 橫濱에 1박하고 10일 동경
의 불교협회 본부를 방문한 경과를 약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11일 다시 橫
濱에서 출항, 18일 하와이(布哇)에 도착한 후 21일 정식회의가 열리는 날에 조
선을 대표하여 인사들에게 『Korean Buddhism and Her Position in the cultural

18) 도진호의 회의 참가와 불교사적 의의는 김광식, 「최남선의 『조선불교』와 범태평양불교청년회의」,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참고.

history of the orient』라는 책자를 배부하여 큰 호응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였다. 사실 이 책자는 대회 출발 20일을 앞두고 ‘최남선이 집필하고 崔鳳秀가 번역한 것’으로 “그 過程과 經緯에 있어서 꺾으나 크다란 苦難과 쓰라린 經驗”이 녹아 있는 책자다. 그 결과 “朝鮮及朝鮮佛敎의 歷史的 使命을 世界萬邦에 完傳하였스며 世界及世界人들이 비로소 우리 손과 마음에서 나간 意義깊은 이 선물에 感銘”한 것으로 자평하고 집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 책자는 기행문 발표 직전인 74호(1930.8)에 「朝鮮佛敎-東方文化史上에 잇는 그 地位」라는 제목으로 최남선의 글로 수록된 바 있다. 도진호가 조선 대표로서 참석하기 전부터 불교사 내외의 여러 인사들이 협력한 결과 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인도, 미국, 하와이 등에서 온 177인이 참석한 정식 회의의 일정과 토의 내용은 紀事식으로 소개하였고, 필자는 조선불교를 대표하여 ‘성명서’ ‘조선불교청년회 현황보고’ ‘조선불교청년회 연혁 개요’를 영어로 발표하였다. 각국에서 제출한 안건을 토대로 분과회의를 거쳐 도출한 ‘汎太平洋佛敎青年會議決議錄’을 적요식으로 소개하였다.¹⁹⁾

이러한 경과를 볼 때 조선불교청년회 활동은 당시 불교청년운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제시한 시대적 사명은 다시 조선의 청년들에게 불교발전의 방안으로 피드백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불교청년회가 불교청년동맹으로 발전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佛靑運動』이라는 잡지를 창간(1931.8)한 과정은 사실 이러한 국제 조류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적 움직임에, 추정이지만 그러나 당연하게도, 도진호의 기행문이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太平洋大會記餘」에는 대회의 경과를 소개한 앞의 글에 이어 조선대표로서

19) 여기에는 불교청년운동의 한 방식으로 각국의 불교문학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주요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자신이 행한 강연, 배부한 기념책자를 소개한 후일담이다. 글의 구조를 볼 때 사실의 전달인 회의 참가기를 핵으로 하고, 견문과 감상으로 외피를 감싼 기행문으로 평가된다.²⁰⁾ 아울러 그의 해외 동정에 대한 국내의 조선불교청년계의 반향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²¹⁾

3. 김일엽

김일엽은 신여성의 대표 주자로 불교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28년 6월(『불교』 48호) 불교사 기자로 입사한 기록이 있고, 퇴사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29년경 퇴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는 1930년대에도 전직 직원 및 기자로서 『불교』지에 회고담, 창작설화, 단형 소설, 수필(기행문 포함)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사실 그가 입사한 시기는 백성욱과 외부 문인들(유엽, 방인근)이 입사한지 한 달 후인 1928년 6월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불교와 크게 관련이 없었던 인물로서 외부의 문인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의 문인들이 입사하면서 『불교』지에는 소설, 희곡, 시조 등 일반 문인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었다. 김일엽이 1920년대까지 발표한 몇 편의 글은 일반 문인의 글로서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동시에 불교사의 직원, 기자로서 담론을 주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하나의 주제어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20) 그는 공고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대회 참석을 계기로 하와이 포교, 미국 진출의 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하와이에 조선문고를 설치하고 사찰을 세우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었다. “도진호 師-작년 포왜 개최된 태평양불교청년대회에 갔다운 뒤로 늦긴배 있어 포왜에 있는 조선동포에게 조선의 문화와 정조를 교양하기 위하여 포왜에 朝鮮文庫를 설치하랴므로 각방면으로 노력중이라 하니 그 유종의 미를 빈다.”(87호의 불교회보)

도진호는 이후 미국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교민대표로 내는 등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었다.

21) “도진호 사가 미국 布哇로 갔다지 文庫? 布教? 두 가지 다 하면 기학상양주”, “도진호 師는 去8월21일 경성발 미국 布哇로 갔는데 師는 彼地에 朝鮮文庫를 세우고 旣 불교포교사업을 일으키겠다고”(이상 『금강저』 19호, 1931.11), “도진호 사가 포왜에서 포교사업의 첫숨씨로 高麗禪社를 창설하였다고”(『금강저』 20호(1932.12) p.64.)

「回顧」(49호, 1928.7)는 입사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자전적 수필로서, 자유연애를 부르짖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가의 지나는 반생을 파노라마처럼 전개한 글이다. 「影池(傳説)」(50·51호, 1928.9)는 불국사 석가탑(무영탑)을 축조할 때 중국에서 온 석공과 그 아내의 애뜻한 사랑의 전설을 각색한 짧은 글이다. 「파랑새로 化한 두 靑春」(55호, 1929.1)은 평안남도 용강군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인데, 탁발승과 젊은 처녀의 사랑이야기로서 불완전하나마 서사적 구성을 갖추었다. 「(古談)女子의 마음」(57호, 1929.3)은 전설을 각색한 것인데, ‘누가 아내와 제일 정다운가’를 두고 자랑하는 일종의 경합담에 속한다. 「X氏에게」(60호, 1929.6)는 ‘동무가 엮던 異性에게 보내는 편지 그대로 轉載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편지글이다. 본문에는 필자가 ‘K生’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 목차에는 ‘一葉’으로 소개되어 있어 김일엽의 글로 파악된다. 떠난 사랑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애정을 담아 전달하고 있다.²²⁾

이처럼 1920년대 김일엽의 글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수필, 소설, 전설에 관통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글은 불교사의 기자로서 공인으로서 자신을 객관적 위치에 두는데 실패했으며, 불교사의 필진으로서 제자리를 찾는데 미흡한 습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신여성계를 떠나 불교사에 입사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동력이었던 사랑이라는 실체에 대해 탐구하는 일관성 있는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

이상의 평가는 1930년대 남편과 함께 자신의 고향에 있는 용강온천을 다녀온 사적인 기행 「龍岡溫泉行」(88호, 1931.10), 유랑인을 소재로 한 미완의 소설 「慈悲」(1)(92호, 1932.2), 일본 잡지에서 채록한 두 남녀의 짝사랑의 비극 「愛慾이 나흔 悲劇」(95호, 1932.5),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이야기한 수필 「暑中雜感」(99호, 1932.9), 고부간의 갈등과 남편의 재산탕진 등 인생의 여러 단면을 이야기한 「社會相의 가지가지」(105호, 1933.3), 보성고보 교사인 남편과 나는 안타

22) 정황으로 보아 X는 불교사의 직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여 잠시 함께 근무했던 백성욱으로 추정된다.

까운 수험생의 사연을 소개한 「普成高普 入學試驗 때」(107호, 1933.5) 등의 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소재는 일상적이며 내용은 사적이고 주제는 현실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일부 작품에서 결말에 불교적 진술이 있으나 필연적 전개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그가 각색한 설화나 창작 소설의 완성도는 높지 않으며 기행문 역시 개인적 소감을 담은 것으로 사적 담화에 가깝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回顧」로부터 시작된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문 연작이다.

앞서 살펴본 「回顧」(49호, 1928.7)에서 필자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활로를 찾은 것이 곧 ‘我’를 찾는 것이었음을 말하면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불교적 가르침에서 찾게 될 것을 암시한 바 있다.

「佛門投足 二週年에」(68호, 1930.2)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자신이 불교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와 불교사 사장 권상로에게 한문을 배우면서 불교를 알게 되는 과정을 자전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도열에 비추어 불교가 미진하다고 평가하면서 최근에 창설된 불교여자청년회도 십여 명의 회원이 모일뿐이라는 자괴감을 토로하였고, 청년회 간부부터 불경, 교리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년의 각오로 대신하고 있다. 근대적 포교에 대한 각성이 드러나 있는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이제는 비로소 불교계 인사로서 자기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女信徒로써의 新年感想」(91호, 1932.1)은 새해를 맞이하여 무작정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지는 않았다. 서두에서는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규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세월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불교에 귀의한 현재의 자신의 각오 또한 남다른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佛法을 두고 새해를 네번째 맞게되는 나는 이 새해에 비로소 나는 信徒의
다 나는 특별이 女信徒외다 좀더 迷하고 좀더 俗된 女人中에 起信을 한 女
信徒외다 衆生들은 나와 갖치 信徒가 되사이다하고 勇氣있는 말을 할 수

있나니라 -중략- 그러나 해마다 信心이 조금씩조금씩 김허가는 것만은 사실이엿나이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부터 비로소 『佛敎』 『佛靑運動』 그 외에 初入의 佛書를 넘기 시작하는 동시에 佛道가 無上함을 더욱 切實이 늦기엿나이다 -중략- 하고십견만 바랄수업다하여 버려두엇든 文人의 素質을 잘 길느고 道를 새쳐서 부처님의 眞理를 發表하야 衆生을 건지겟다는 誓願과 힘써 힘없는 努力을 할 것이외다(pp.41~42)

인용문에서 비로소 자신이 불교의 신도가 되었다는 점, 여성의 위치에서 여신도로서 자각을 하면서 자신이 불교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문인의 재능으로써 불법을 전파하여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런 과정은 불교잡지와 기본적 입문서의 독서가 바탕이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이제 비로소 불교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필자가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항상 사교의 저변에 깔려 있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여성의 대표주자로 시대와 여성의 관계를 현실 속에서 몸소 헤쳐 나갔던 김일엽 자신의 일관된 지향이라 할 수 있다. 결론에는 불교 교단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 종교에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특히 여신도 역할이 미미하여 신여성의 신도가 적고 활동이 적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 한해를 보내면서」(103호, 1933.1) 역시 앞의 글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상함을 길게 서술하였는데 시간의 무상함을 닭장의 주인과 닭에 비유하여 제시하면서 우리의 보배를 찾기 위해 어두운 눈을 밝히려는 주장으로 마무리하였다. 비록 평이한 신년 담화에 불과하지만 간단한 내용에 원시불교경전의 비유설법에 상응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삼입함으로써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신년 수필에서 다짐했던 ‘문인의 역량’을 포교를 위해 발휘하겠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신년 수필의 내용 변화를 통해 과연 김일엽이 1933년 출가한 것이 우연이 아니며 정체성 고민에서부터 여러 모색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필연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분히 사적인 내용으로 보였지만,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고난을 겪고, 불교에서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배움을 통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불교여성청년회 활동을 해 나가는 한 개인의 기록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 한 신앙인의 내면세계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한편 신앙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김일엽은 시조라는 장르를 발견한다. 그는 94호(1932.4)의 불교시단에 시조 <行路難>을 발표한 이후 14편의 시와 시조를 발표하였는데,²³⁾ 시기적으로 『불교』지의 편집인이 만해로 교체된 이후 종교문학으로서 시조라는 장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발표한 시조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94호부터 108호까지 1년여에 걸쳐 발표한 시조와 시는 주로 [불교시단]란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수필이 자신의 삶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 과정을 진솔하게 드러낸 특징이 있는 것처럼 시조에서도 신앙에 귀의한 이로서 종교적 진실에 다가서고자 하는 진솔한 심정이 드러난 경우가 많다.

님께서 부르심이
 千年前가? 萬年前가?
 님의소리 늦기일쎈
 금시님을 뵈옵는듯
 法悅에 뛰놀것만
 들쳐보면 거기로다
 ×
 天宮에서 詩쓸쎈가?
 地上에서 꽃팔땀가?
 불으시는 님의소리

23) <行路難>(94호, 1932.4), <青春> <님의 손길> <歸依>(95호, 1932.5), <落花流水> <落花>(96호, 1932.6), <佛敎誌> <世尊이예든길> <가을> <晚覺> <鏡臺압해서>(100호, 1932.10), <無題>(101·102호, 1932.12), <때 아닌 눈>(106호, 1933.4) 등은 시조 장르, <시계추를 쳐다보며>(108호, 1933.7)는 시 장르이다.

듯기는 드릿것만
어대인지 分明치못하야
뽕뽕이만 치노라

×

님이여! 어린魂이
님의말씀 糧食삼아
숨음을 모루옴고
가노라고 가것만은
지축지축 아가거름
언제에나 님뵈릿가! <行路難>(94호, 1932.4)p.21.

<行路難>은 이백의 장시 제목을 따와서 신앙 길의 험난함, 구도행의 어려움을 토로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아니고, 불교에 입문한지 몇 해 되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일엽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다. 불교의 진리를 님의 목소리로 설정하고 들릴 듯 말 듯, 뵈을 듯 말 듯 한 님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초심자의 구도행을 노래하였다. 잠시 입을 뵈올 때도 있는 듯하지만 다시 나 자신의 위치를 찾아보면 다시 그 자리이고, 방향을 잡지 못해 빙빙 도는 화자의 모습을 아기 걸음에 비유한 이 시는 수필에서 보여주었던 진솔한 신앙 고백에 다름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3연으로 이루어진 시조로 보이나, 종장의 첫 구가 3음절이고 둘째 구가 5음절 이상인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을 준수하지는 않았다. 시조가 아니고 자유시의 율격에 미치지 못하는 2음보 연속의 단형시로 볼 수도 있다.

내용의 소박함과 시 형식의 불철저함을 보면 일엽은 시인으로서 철저한 수련을 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내면을 소박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주에 만유한 불성을 보고 듣지 못하고 헤매는 중생의 모습을 노래한 <님의 손길>, 불법에 귀의하고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이 기쁘지만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 아쉽다는 <歸依>, 세존이 행하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도 따라 가리라는 다짐의 <世尊이예든

길>, 세상은 몽환이요 인생은 무상한데 ‘대도를 깨치고자 마음만 홀로 바쁘다’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無題> 등은 불교에 입문하여 공부하고 정진하고자 하나 아직 갈 길이 먼 자신을 발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있는 작품들이다.

이외에 시간의 흐름과 덧없는 세상사, 인생사를 대비시킨 <가을> <晚覺> <시계추를 쳐다보며>, 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난 미를 추구하는 여성의 한계를 한탄한 <鏡臺압해서> 등은 그의 수필에서 늘 서두를 장식한 내용들의 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시조 형식에 대한 불철저한 운용은 한계로 남겠지만 다음 시들은 사물에 대한 시적 관찰과 그 표현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싸슨벗 니불삼아 풀요우에 누엇으니
적은새 노래하고 간은바람 키쓰한다
無心한 저구름은 시샨줄을 모르는가 <青春> (95호, 1932.5)p.28

流水는 光陰이오 落花는 人生이라
한구비도 못돌어서 꽃났은 으서저도
그네게 안긴魂은 바다까지 가거라 <落花流水>(96호, 1932.6)p.43

열매를 고히지어 낚속에다 숨겨두고
옛집을 떠나가는 어엽븐 꽃이어늘
날으고 또날으기에 나비인가 하얏노라 <落花>(96호, 1932.6)

세상이 어지러니
절기쫓차 문란한가
봄차지 그大地를
눈이야사 안엇으니
두어라 그눈이녹어
꽃을재촉 하리라 <매아닌 눈(雪)>(106호, 1933.4)p.18

<青春>은 따뜻한 별을 이불삼고 풀을 담요 삼아 누우니 작은 새는 노래하고 가는 바람은 키스한다는 내용으로 봄날 찬란한 한 순간을 시각 청각 촉각의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앞서 소개한 시들과 달리 오직 봄날의 감각에 시인의 정서를 맡겨 놓아 서정적인 감성을 잘 포착하였다. <落花流水>의 초장은 세월의 흐름이 빠르고 인생은 무상하다는 불교의 관용적 인식과 그 표현을 유수, 광음, 낙화, 인생이라는 한자어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압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저 지는 꽃잎이 한 구비도 돌지 못해 으스러지겠지만 그 안에 담긴 혼은 바다까지 가리라는 염원을 담아내었다. 역동적인 물살 가운데서 한 순간 사라지는 꽃잎의 무상함을 탄식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혼은 멀리 바다 끝까지 닿으리라는 기대이자 바람을 담았다. 어설뿐 종교적 탄식이 나 승화로 마무리 하지 않고 긴 여운을 남기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작품이다. <落花>는 열매를 잎 속에 남겨놓고 떨어지는 꽃잎을 나비인줄 알았다는 내용의 시조작품이다. 허무함 속에 감추어진 고귀한 생명, 하강하는 꽃잎과 상승하는 나비의 몸짓, 이러한 모순되는 시어들이 동시에 표현됨으로써 감동을 선사한다. 이는 <때아닌 눈(雪)>에서도 발견된다. 절기가 문란해져 봄날에 때아닌 눈이 내려 봄 기운을 없애 버렸으나, 오히려 그 눈이 녹으면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역설의 미학을 보여준다. 죽음과 생명이 상승하는 이미지와 하강하는 이미지를 통해 좋고 나쁨의 차원을 넘어 우리네 인생사, 자연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일엽의 시조와 시는 전체적으로 낮은 자세로 불법을 깨우치고자 하는, 불교에 입문한 시인의 소박한 감성이 반영되어 있다. 세상에 달관한 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관조하고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어 갈구하는 자세가 오히려 종교시로서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일정정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시적 사물에 대한 공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며 교조적인 종교적 담화를 벗어나서 죽음과 생명, 조락과 탄생 등이 일상의 언어로 형상화되어 있어 서정시의 본령을 획득했다 할 수 있다. 일엽의 시는 『불교』지에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서정시, 서정적 종교시의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런 측면

에서 일엽이 구축한 불교시의 영역을 새롭게 평가할 가치가 있다. 여성 문학으로 『불교』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가와 작품이 없는 가운데, 한용운이 마련한 [불교시단]에 자신의 시조 작품을 집중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불교문학의 장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IV. 1930년대 불교문학장의 구도와 성격

1924년에 창간된 『불교』지는 권상로에 이어 84·85호(1931.7)부터 편집인이 한용운으로 교체되면서 몇 가지 지면상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불교사의 주요 필진이자 실무를 담당했을 직원, 기자의 면면을 보면 대표 편집인의 교체에 따른 구성원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속성을 전제로 하되, 획기적인 변화 양상을 제시하기보다는 편집인 한용운이 가져온 체재상의 변화와 새로운 창작물의 성격, 30년대 발표한 기사들의 역할과 수록작품의 경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용운이 편집인으로서 기여한 바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한용운은 당시 전주 안심사에 소장되어 있는 658매의 한글경판(언해 불서)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 이는 일종의 한글문화운동으로서 불교계가 한글 창달에 기여한 또 다른 측면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²⁴⁾

또 잡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권두언에 해당 호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담은 시, 시조, 산문을 게재하여 『불교』지의 문학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권상로가 1920년대에 찬불가(창가)를 게재하여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가요를 시험한 것에 견줄 수 있다.²⁵⁾ 권두언 가운데 특히 산문 형태로 되어 있는 <스스로> <恒河沙劫> <나가 없으면> <成功하는 道中> <해는

24) 김성연(2014)과 필자(2015a)의 선행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25) 필자의 전개 논문(2015b) p.312 참조.

저물었다> <해는 새롭었다> <隙雲이> 등은 시어의 상징성이 돋보이고 시적 내재율을 갖추고 있어 산문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평가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 산문시는 한국 불교시의 시문법이 근대에 어떻게 계승, 원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님의 침묵』의 저자로서 한용운은 『불교』지에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발휘한 것이다. 한용운은 『임의 침묵』 한 권으로만 한국 시단에 기여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용운이 『불교』지 발행 겸 편집인으로서 [불교시단] [독자시조단] [독자문단]을 신설하여 시, 시조를 대폭 확장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87호(1931.9)부터 시작된 [불교시단]란에는 조종현, 김태흡, 김일엽, 김어수 등 총 47인, 약 170여 편의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 빈도순으로 보면 조종현(조탄향 포함, 19회 32수), 김태흡(8회 8수), 김일엽(7회 14수), 나방우(7회 8수), 윤한성(7회 7수), 김어수(6회 11수), 장익순(5회 8수), 홍준표(4회 4수), 박병우(4회 6수), 강유문(3회 3수) 등이다.²⁶⁾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전국의 강원이나 중앙불전에 적을 두고 있던 학인, 학생들이다. 이들 불교청년들이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시를 창작, 투고하는 발표지면으로 『불교』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용운은 講院, 중앙불전 및 일본의 대학에서 배출된 문학청년들을 시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좌장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청년들이 문학청년으로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데 기여한 것은 한용운이라는 좌장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불교시단]란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 수를 볼 때 김태흡, 김일엽도 선두 그룹에서 있는 것을 보면, 그들 역시 불교사의 직원 및 기자로서 상기한 문학적 흐름을 주도해 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용운이 마당을 열고 김태흡, 김일엽 등 전 현직 직원 및 기자들이 분위기를 형성해 간 형국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불교시문학의 마당에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뛰어든 문학청년의 대표주자들은 조종현,

26) 이 통계는 필자의 전계 논문(2016) p.226 재인용.

김어수, 강유문 등 상기한 학인, 학생들이다.

김태흡, 도진호, 김일엽, 안진호 등 불교사 직원 및 기자들은 이 시기 잡지에 구현된 불교문학장의 주체로서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불교사와 관련해서, 혹은 주변에서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여 문학행위를 함으로써 잡지의 지면을 단순한 사상적 텍스트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불교도로 살아가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인문 잡지로, 문화잡지로, 문학잡지로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실 『불교』지에 문예지적 성격을 가미하고자 한 시도는 1928년에 권상로 편집인이 유엽, 방인근 등의 외부 문인을 직원으로 영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시도는 1년 정도 유지되다 말았던 것이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 일반 문인들의 작품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이들 직원, 기자 중심의 기행문이었다. 이는 양과 질에서 그러하다.

특히 불교사 직원으로 큰 역할을 한 이는 김태흡이다. 당시 조선불교의 중앙 교당인 각황교당의 포교사라는 직위는 근대불교의 포교 상의 혁신을 추구하는 주체이자 도시 불교의 선봉대로 생각되는데, 김태흡이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편집의 핵심 인물로 역할을 한 것이다.

김태흡은 포교사로서 전국 각지의 요청이 있을 때 각 도시를 방문하여 강연 활동을 하며 근대식 전도행각을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그 실시간 상황을 기획 보도 형식으로 『불교』지에 투고함으로써 근대불교 포교의 활동 양상, 각 도시의 불교의 양상에 대해 생생하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의 기행문은 건조한 사실의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부터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각 도시의 불교 현황과 그 지역 인물과의 만남, 지역적 특색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수반되어 문학적 텍스트로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특히 1930년대에 투고한 기행문 중 주목되는 것은 함경도, 평안도, 백두산 지역의 전도 여행기인데, 여기에는 이 시대 타 종교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각 도시에 불교회가 설립되고 수많은 청중이 운집하는 열기가 잘 소개되어 있다. 『불교』지에 종교교성을 강화하는 기획보도물인 이들 기행문은 문학적 감흥을 충분히 전달하

는 수준에 이르렀다. 동시에 이들 기행문은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흡이 활용한 문학 장르는 기행문 외에 시, 희곡이 있다. 희곡은 초기경전에서 소재를 취하여 각색한 작품이 대부분으로 근대불교의 여러 행사시에 필요한 레퍼토리를 당대의 포교사로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김태흡이 발군의 창작 역량을 발휘하여 다양한 장르에 걸쳐 근대불교의 포교의 형식을 만들어 간 그의 업적은, 30년대 초까지 한정한다면, 이 시대의 불교포교의 선구자이자 불교문학장의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한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²⁷⁾

이외에 도진호의 해외 기행문, 김일엽의 수필, 설화각색, 소설, 시조, 안진호의 기행문도 주목된다. 도진호와 김일엽의 문학세계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고, 안진호의 기행문은 192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불교역사자료 탐색이라는 목적으로 답사한 기록으로서 이 시기 『불교』지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불교사 사장 권상로와 오랜 인연을 맺은 그는 봉선사, 백양사 강사로서 1920년대 문학장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안진호는 불교사의 정식 직원 명단에 보이는 인물은 아니다. 다만 창간 당시부터 불교사 촉탁기자로서 남도의 주요 사찰을 돌아다닐 때 불교사의 행정 업무(수납)를 대행하며 불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안진호는 이미 1920년대 『불교』지에 「楊州各寺巡禮記」(29-49호), 「色塵聲塵」(53-62호), 「千佛千塔을 參拜하고서」(65-66호) 등을 연재하며 봉선사 본말사, 송광사 선암사 일원, 운주사 등지를 답사하고 충실한 기행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작성한 최초의 기행문 「楊州各寺巡禮記」는 그가 펴낸 근대사지의 전범이라 할 『봉선사본말사지』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봉선사와 건봉사의 전례를 따라 여러 사찰에서 자신들이 속한 본산의 본말사지를 엮는데 관심을 가지고 안진호가 방문할 때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안진호는 이미 1920년대 권상로와 함께 사찰사료의 수집을 위해 의

27) 그는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佛敎時報』(1935.8-1944.4)를 창간하고 心運運動을 전개하며 일제의 이데올로기 구현에 앞장선다. 불교포교활동을 통해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이바지한 그 시기에는 문학이 설 자리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불교시보』에는 문학적 텍스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교문학장의 주체로서 그의 역할은 본고에서 다룬 이 시기까지이다. 이후에 보여준 그의 행적은 개인으로서나 불교계를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 크나큰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투합한 바 있고, 30년대에도 사찰사료 수집과 회비징수를 담당한 객원기자로써 역할을 계속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史料蒐集兼佛教誌代徵收로 南鮮地方을出張”(86호, p.48)하며, “佛教誌代徵收의 二三割을 背景삼아 忠南本末을 先着手하기로 하고”(97호, p.54) 여정을 시작하였다. 「桐華寺의 一週日」(73호, 75~76호, 1930.7.9~10), 「寺刹史料蒐集의 길을 떠나면서」(86,87,89호, 1931.8,9,11), 「釋王寺行」(97호, 1932.7) 등 사찰의 본말사지 제작과 역사 수집을 위한 필자의 꾸준한 여정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그가 이 시기 문학장 구축의 한 주역으로 여견히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기행문이라 하더라도 당대 불교포교의 현실을 중심으로 한 충실한 보고를 통해 도시 불교의 활발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한 김태흡의 기행문, 하와이에서 열린 불교청년회의에 참여하고 그 실상을 보고하면서 시야의 확장을 가져온 도진호의 기행문, 각 사찰의 작은 현판이나 문헌, 유물 하나라도 낱낱이 소개하면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안진호의 기행문은 그 지향과 독자에 전달되는 감흥의 차원이 다르다. 다채로운 기행문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통한 문학작품의 창작은 사실 각 장르의 문학적 형식에 충실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이 시기 문학장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료들이라 할 수 있다. 문학장 주체로서 이들 불교사 기자들의 역할이 뚜렷하다 할 수 있다.

V. 맺음말

1930년대 『불교』지의 문학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편집 겸 발행인, 직원 및 기자와 외부 투고자群이 있다. 이 가운데 본고는 대표 편집인과 직원 및 기자로서 문학지면의 구성에 기여하거나 기획에 동참하거나 투고를 통해 문학적 성격을 가미한 인물과 이들의 대표적인 문학 실현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다만 이들의 활동, 즉 편집 전략이나 기획 과정, 그 실천의 과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문학적 실천에 비중을 두어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불교문학의 장이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획득한 데 작가만이 아니라 근대불교의 혁신적 분위기에서 나름대로의 문학적 역량을 가지고 종교성과 문학성을 조화시켜 나간 편집부의 직원 및 기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30년대 『불교』지의 문학장은 대표편집인, 직원 및 기자들과 함께 이들의 기획에 따라 새로 등장한 신진문사들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이들 불교문학청년들의 실체와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불교
- 일광
- 금강저
- 김광식·이철교 편,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1~17책, 50~51책, 52~53책, 민족사, 1996.

2. 단행본류

- 김광식,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3. 논문류

- 김성연, 「1930년대 한용운의 불교개혁론과 민족의식 고취」, 『불교문예연구』 3집,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4.
- 김성연, 「일제강점기 『불교』지의 발간과 그 의의」, 동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기중, 「김태흡의 대중불교론과 그 전개」, 『한국선학』 26집, 한국선학회, 2010.
- 김종진, 「근대불교잡지의 한글인식과 한글문화운동」, 『불교학연구』 43호, 불교학연구회, 2015a.
- 김종진, 「1920년대 『불교』지 문학장 형성의 주체와 동력-동력의 중심, 권상로와 대승사·김용사 인맥」, 『동악어문학』 64호, 동악어문학회, 2015b.
- 김종진, 「1920년대 『불교』지에 나타난 불교유학생의 문학활동-백성욱·김태흡·이영재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42집, 한국불교연구원, 2015c.
- 김종진, 「『불교』지 문학지면의 연대기적 고찰」, 『한국문학연구』 5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 신은연, 「1930년대 불교회곡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6.

The Subject of Literature Field and It's Realization in Literary Works in *Bulgyo* magazine in the 1930's — Focusing on the editors and reporters —

Kim, Jongjin
Assistan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With its starting point *Joseon Buddhism Monthly Journal* published in 1912, about 20~30 modern Buddhist journals have been created and known. Among them, the long-time published journal with the most stable foundation would be *Bulgyo (Buddhism)*, published from July 1924 to July 1933, with a total 108 volumes. *Buddhism* was composed of historic, cultural, and literary contents other than ideological discourse, showing the character of a general journal.

Following exploration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literature field of *Buddhism* in the 1920'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ubject and power of a literature field in the 1930's. The main targets were representative editors, associated personnel and reporters. They did not only conduct administrative works but acted as the subjects to form a literature field as well. In fact, they played an initiative role in embodying a literature field through creating literary works in reality.

This study explores the new section created by Han Yong-un (Manhae), the editor who put his own poem in the beginning of the journal, adding a character of literature journal, and also the literary men he introduced through the section. During this process, about 40 new poets from monastic schools or professional schools made their debut through the section 'Buddhist Poems'. Han Yong-un was the center of this change. In addition, former and present reporters including Kim

Tae-heup, Doh Jin-ho, Kim Il-yeop, Ahn Jin-ho, etc., were active in various types of literary fields such as poetry, travelogues, essays, plays, novels and legendary stories, and they expanded the horizons of Buddhist literature. At the end of the 1920's, their works substituted those of general writers and heralded the tendency of reinforcing religiosity and contemporaneity in literature in the 1930's

Keywords

Buddhist journal, Buddhist literature, modern Buddhism, Han Yong-un, Kim Tae-heup, Doh Jin-ho, Kim Il-yeop, Ahn Jin-ho

2016년 08월 05일 투고

2016년 09월 08일 심사완료

2016년 09월 08일 게재확정

